

바닥 찍은 SK이노, 유가·친환경 호재로 반등 기대감



SK이노베이션 본사 전경.

/SK이노베이션

작년 영업이익 2조... 전년비 34% ↓

재고손실 환입·정제마진 개선
저유황제품 확대 등 탄력 대응

지난해 4분기 유가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과 정제마진 하락의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SK이노베이션이 올해 1분기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지난 4분기의 재고관련손실의 일부 환입과 정제마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총 2조120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34.2% 줄어든 수치다. 4분기 영업손해는 2788억원으로 특히 석유사업에서만 554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약세로 접어든 정제마진의 영향 외에도 국제 유가급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이 4253억원에 이른 영향이 컸다.

업계는 최근 유가 상승세로 인해 올 1분기 중 기저효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실적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4분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고평가손실 중 일부가 유가 상승 시 재고평가이익으로 환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3월 유가에 따라 결정돼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유가가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 재고평가손실 일부 환입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유가 상승으로 지난 2014년 유가 급락 이후 매년 이익 개선을 기록해 온 석유사업 기저효과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실적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4분기 국내 정유업계는 국제 유가급락으로 총 7000억원 수준

의 적자를 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재고평가손실로만 6100억원을 기록해 실적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점진적인 유가회복 기조와 정제마진 개선효과가 맞물리면서 국내 정유 4사는 매년 호황을 누려왔다.

정유 4사의 합계 영업이익은 2015년 약 4조7000억원, 2016년 7조9000억원, 2017년 약 7조8000억원으로 대해 확대됐다.

정제마진도 개선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업체들이 지난 1년 내내 최대 가동률을 유지한 결과 수요진작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높게 나타나 정제마진이 약세였다"며 "하지만 올해는 중국의 휘발유 수출 쿼터 감축에 따른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제품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친환경 석유제품 수요 증가

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016년 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해상 연료유에 적용되는 황산화물 함량을 3.5%에서 0.5%로 대폭 감축 시키는 안을 확정,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규제가 시행된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고유황 제품이 줄고 상대적으로 값비싼 저유황 제품 시장이 확대되면 그야말로 호재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 고유황유를 저유황 연료유 등 고부가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VRDS)를 구축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탈황설비 신설로 글로벌 물량부족과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저유황 선박 연료유 시장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AI 스피커 적용 'TV 셋톱박스' 선보

KT스카이라이프

'기가지니2 스카이라이프' 출시

KT스카이라이프는 인공지능(AI) 기반 TV 셋톱박스 '기가지니2 스카이라이프'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스카이라이프 실시간 위성방송과 KT의 주문형비디오(VOD)를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에 AI 스피커를 접목했다.

기가지니2 스카이라이프는 ▲TV 시청, 음악감상 등의 미디어 서비스 ▲일정, 교통, 날씨 등 생활 편의를 돕는 인공지능 홈 비서 서비스 ▲쇼핑, 배달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집안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홈 IoT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리모컨 없이 말로 명령하고 눈으로 화면을 보며 실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니야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물으면 동네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주고, "지니야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라고 하면 알람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지니야, 롯데슈퍼에서 휴지 사줘"라고 하면 추천상품을 구매해서 배송까지 해준다.

아울러 TV 대화 기술과 자연어처리 기



술이 탑재돼 이용자와의 지능형 대화 가능하다.

기가지니2 스카이라이프는 OTS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3년 약정 기준 셋톱박스 임대료는 가입상품 구분 없이 월 4400원(부가세 포함)이다. 기존 OTS 상품 5년 이상 장기 이용자는 OTS 슬림(구, OTS10)을 쓰고 있으면 월 22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OTS 라이트(구, OTS12)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무료로 볼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제네시스 브랜드 G70, 북미 공략 청신호

“진정한 럭셔리카”... 車전문기관 호평 잇따라

美 카즈닷컴 '럭셔리 스포츠 세단' 加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등 수상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G70이 북미의 여러 자동차 전문기관으로부터 잇달아 호평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북미서 딜러망을 구축하고 시장 공략을 준비중인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G70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전문매거진 카앤드라이버가 선정하는 '에디터스 초이스 2019'에서 콤팩트 세단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 7일에는 2019 시카고 모터쇼의 '모터워크 드라이버스 초이스'에서 베스트 럭셔리카로 뽑혔다.

모터워크 수석 총괄 프로듀서이자 진행자인 존 데이비스는 "G70은 균형이 잘 잡힌 새시와 멋진 차체에 화려한 최첨단 사양을 갖춘 진정한 럭셔리카"라고 평가했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이와 함께 G70은 지난 7일 미국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 카즈닷컴의 최고상인 '베



제네시스 G70

스트 오브 2019'에서 럭셔리 스포츠 세단 부문에 선정됐다.

같은 날 캐나다에서는 현지 주요 자동차 기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캐나다 오토모티브 저리로부터 현대차 코나, 재규어 I-페이스, 미쓰비시 아웃랜더 등을 제치고 '2019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수상했다.

G70은 '2019 세계 올해의 차' 최종 후보 10개 차종에도 포함됐다. 2019 세계 올해의 차 주최 측은 다음 달 5일 제네바 모터쇼에서 최종 후보 3개 차종을 공개하고 4월에 열리는 뉴욕모터쇼에서 최종 선정작을 발표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자동차 전문지로 꼽히는 미국 모터트렌드의 '2019 올해의 차'에 제네시스 G70이 뽑히며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북미에서 올해 상반기 중 딜러망 구축을 마무리하고 G90을 출시하는 등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 최대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이 열리는 애틀랜타에서 세단 라인업 전시 및 시승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행사를 진행했으며, 미국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 후원을 이어가며 마케팅 활동도 강화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지엠·르노, 신형 모델로 부진 돌파 기대

>> 1면 '위기의 르노·지엠'서 계속

다만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이 신차 출시를 준비하는 만큼 올 하반기에도 벤츠 코리아가 내수 시장 4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지엠은 올해 대형 SUV 트래버스와 픽업 SUV 콜로라도 등의 출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최근 대형 SUV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픽업 SUV의 경우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의 상승세로 높은 수요를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SUV인 트래버스는 큰 차체와 넓은 실내공간을 바탕으로 미국시장 기준 동급 최대 3열 레그룸(850mm), 트렁크 적재용량(2781L)을 갖췄다. 2열시트 구성에 따라 최대 8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픽업SUV인 콜로라도는 동급 최고출력과 강력한 트레일러 견인능력을 갖췄다. 데크 최대 적재량이 약 713kg으로 렉스턴 스포츠 칸과 적재능력이 유사하다. 엔진은 2.5L 4기통 가솔린, 3.6L V6 가솔린, 2.8L 디젤 등으로 구성됐다.

르노삼성은 할인 프로모션과 상용차 마스터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말 유럽형 마스터 밴을 출시, 300대 전량이 안착되는 등 가능성을 확인했고, 올해 2분기 마스터 버스를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가성비비를 갖춘 신형 모델을 출시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빠른시기에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펠리세이드 탄 BTS... 美 그라미 어워즈 등장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10일(현지시간) 미국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개최된 제61회 그라미 어워드 레드카펫 행사에 현대자동차 플래그십 대형 SUV '펠리세이드(PALISADE)'를 타고 나타났다.

현대차는 펠리세이드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그라미 어워드 시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시상식 참석을 위해 펠리세이드 4대를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 펠리세이드 출현으로 시상식에 참석한 세계적인 뮤지션들은 물론 전세계 음악팬들에게 펠리세이드의 강인하고 대담한 외관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을 선보인 장이 됐다. 특히 현대차는 올 여름 북미시장 판매개시를 앞두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펠리세이드 곁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세계 음악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에 펠리세이드를 선보임에 따라 사전에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펠리세이드'의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로 '방탄소년단'을 선정했으며, 같은 달 개최된

미국 LA오토쇼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영상을 통해 '펠리세이드'를 전세계 최초로 소개한 바 있다. 또 이달 초에는 현대차 미국 슈퍼볼 광고에도 펠리세이드를 투입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